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해설

[정답] 홀수형 기준

- 1.② 2.⑤ 3.② 4.④ 5.④ 6.① 7.② 8.③ 9.③ 10.④
11.⑤ 12.② 13.① 14.⑤ 15.① 16.② 17.② 18.④ 19.④ 20.③
21.⑤ 22.② 23.① 24.① 25.④ 26.① 27.① 28.⑤ 29.① 30.⑤
31.③ 32.④ 33.② 34.③ 35.③ 36.① 37.④ 38.④ 39.⑤ 40.⑤
41.④ 42.③ 43.③ 44.④ 45.① 46.④ 47.② 48.② 49.④ 50.⑤
51.② 52.① 53.④ 54.⑤ 55.④ 56.③ 57.② 58.③ 59.② 60.③

[1-6] 듣기

1. 이제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남): (음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읽는 이(여): 나는 누에를 키운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나는 누에고치에서 누에나비들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그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죠. 고치에 생긴 작은 구멍에서 누에나비가 긴 시간을 몸부림치며 용케 빠져나오는 것을 보던 나는,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그 가엾은 나비를 도와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누에고치 하나에 큰 구멍을 내 주었습니다. 좁은 구멍에서 나오는 다른 누에나비들이 날개가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는 동안, 고치에 구멍을 내 준 나비는 쉽게 고치에서 나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퍼덕였지요. 나는 이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온 나비들은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지만, 큰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비는 책상 위를 몇 번 맴돌더니 얼마 후 지쳐 쓰러졌습니다. 누에나비는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힘이 길러지고 물기가 알맞게 말라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던 거죠. (음악)

1. 추론적 사고(이야기의 교훈 추리)

정답해설 : 이 이야기에서 구멍이 큰 고치에서 아무 고통도 없이 나온 나비는 다른 나비들에 비해 날개는 찢기지 않아서 아름다웠지만 날지를 못했다고 했다. 카프만 부인은 누에나비가 작은 구멍으로 나오려고 애쓰는 동안 힘이 길러지고 물기가 알맞게 말라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도움을 주려다가 피해를 준 카프만 부인의 행동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카프만 부인의 행동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참

고 기다리는 자세도 필요하며, 매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에 관한 교훈은 누에나비의 행동에서도 얻을 수 없고, 카프만 부인의 행동에서도 얻을 수 없다. [답] ②

2. 이번에는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대개 어린이가 어른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목소리가 높죠? 오늘은 목소리의 높낮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죠. 진동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진폭과 진동수인데요. 진폭은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가의 문제이고, 진동수는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고, 진동수가 높으면 소리가 높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목소리가 높죠. 어린이가 어른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목소리가 높은 것도 어린이와 여성 목소리의 진동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의 성인 남성 목소리의 진동수는 150~160헤르츠 정도이고 성인 여성은 240~250헤르츠 정도입니다.

목소리의 진동수가 이렇게 다른 주된 이유는 성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대가 길면 저음을 내고 성대가 짧으면 고음을 내죠. 실로폰의 긴 음관이 짧은 음관보다 더 낮은 음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변성기 이전에는 성대의 길이가 0.8센티미터로 남녀가 비슷하지만, 변성기를 거치면서 남성의 성대는 1.8에서 2.4센티미터까지 길어지고, 여성의 성대는 길어 봐야 1.7센티미터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2.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이 강의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목소리가 높다는 데서 출발하여 목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인데, 진동의 성질은 진폭과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 목소리의 높낮이도 마찬가지여서 진동수가 높을수록 목소리가 높다. 목소리의 진동수는 성대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변성기 이전의 어린이는 남녀 모두 성대가 짧아 진동수가 높고 고음이 난다. 하지만 변성기가 지나면 남자는 성대가 길어져 저음이 나고 여자는 성대가 상대적으로 덜 길어져 저음이 난다. 따라서 이 강의는 결국 목소리의 높낮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 ⑤

3.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 철수야, 아빠가 재미있는 놀이 하나 가르쳐 줄까? ‘고누’라고 하는 건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야.

철수: ‘고누’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버지: ‘그림 A’를 보렴. 이게 고누판인데, 이 고누판에서 두 사람이 교대로 자기 말을 움직여서 상대방의 말을 다 잡으면 이기는 거야. 이때 말은 기본적으로 선을 따라 상하좌우로 한 번에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지. 다만, 고누판 네 귀퉁이의 동그라미 부분만은 예외란다. 동그라미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동그라미를 따라 돌면서 여러 칸을 갈 수가 있어.

철수: 어떻게 간다고요?

아버지: 예를 들어 줘야겠구나. 자, ‘그림 A’에서 ‘가’로 표시한 말을 보자. 이 말을 위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한 칸밖에 갈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거기서 동그라미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가령 1번 자리로 움직이면, 화살표를 따라 동그라미를 돌아서 2번을 거쳐 3번까지, 또 동그라미를 돌아서 4번, 그리고 5번, 6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야. 네가 원한다면 1번에서 6번까지 어느 자리에서든 멈출 수 있단다.

철수: 아빠, 그럼, 6번을 지나면요?

아버지: 그러면 자기편 말인 ‘나’에 막히니까 ‘나’ 왼쪽에서 멈춰야지.

철수: ‘가’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를 오른쪽인 2번으로 움직이면 화살표를 따라 1번 자리를 거쳐 ‘다’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겠지? 그럼 ‘다’를 잡을 수 있단다. 중요한 점은, 상대 말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만 한다는 거야. 검은 말 ‘나’를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여서 ‘다’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거지. 반드시 귀퉁이의 동그라미를 돌아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말을 잡는 게 이 놀이의 규칙이란다. 그럼, 철수 네가 한번 해 볼래? ‘그림 B’에서 검은 말 ‘가’와 ‘나’가 네 것인데, 상대편 말 ‘다’를 한 수만에 잡으려면 어떤 말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겠니?

3.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고누’ 놀이에 대한 아버지의 설명에 따르면 고누판에서 말은 기본적으로 한 번에 상하좌우로 한 칸씩만 움직일 수 있지만, 네 귀퉁이의 동그라미를 따라 돌게 되면 자기편 말이 가로막지 않는 한 여러 칸을 한꺼번에 움직여서 상대편 말을 단박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상대 말을 잡으려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편 말을 한 수만에 잡으려면 일단 말을 동그라미가 있는 귀퉁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림 B에서는 ‘가’

의 말이 귀퉁이 주변에 있으므로 반드시 ‘가’의 말을 움직여야 한 수만에 상대편 말 ‘다’를 잡을 수 있다. ‘가’의 말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1’, ‘2’, ‘3’인데 이 중에서 ‘2’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동그라미 세 개를 거쳐 막힘이 없이 여러 칸을 움직여서 ‘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반드시 동그라미를 먼저 돌아야 한다고 했는데 ‘나’의 말을 먼저 움직이면 어떤 경우에도 한 수만에 동그라미가 있는 방향에 도달할 수 없고, ‘가’의 말을 ‘1’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 칸밖에 못 움직이고, ‘가’의 말을 ‘3’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기편 말인 ‘나’에 막혀서 ‘다’를 잡을 수 없다.

4.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영화야, 여기 신문 좀 봐. 우리나라가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한다네. 너, 그게 뭔지 알아?

여: 응~ 그거.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만든 국제적 지원 제도야.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원조를 하지 못했잖아. 이제라도 확대한다니 참 잘한 일이야.

남: 그래? (휴지) 어려운 나라를 돕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국내 사정도 좋지 않은데,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닐까? 수출도 어렵고 경제도 위축된 상황에서……. (휴지) 일단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보고 지원을 많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좀 더 발전한 다음에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도 살기 힘든데…….

여: 아냐,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닌 거 같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우리도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해. 게다가 공적 개발 원조에 적극 참여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거야. 물론 잘사는 나라들이 원조를 더 많이 해야겠지.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국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데도 더 적극적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도 있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우리보다 특별히 높지도 않은데 말이야.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 좀 봐.

4. 비판적 사고(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정답해설 : 여학생은 우리 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 확대에 대해 찬성하면서 국가 경제 규모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적은데도 더 적극적으로 원조를 하는 나라가 있다는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제지에 제시된 표에서 확인해 보면 우리 나라보다 국민총소득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과 파키스탄이고(국가 경제 규모는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는 ‘국민 총소득’과 더 관계가 깊다), 이 중에 공적 개발 원조액이 우리 나라보다 많은 나라는 포르투갈임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우리 나라보다 공적 개발 원조액이 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 캐나다,

독일은 우리 나라보다 국가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6. 이번에는 대답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래 한마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교수님을 모시고 전래 동요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교수: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선생님, 요즘 아이들은 동요보다는 대중가요에 훨씬 친숙한 것 같은데요?

이 교수: 맞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동요조차도 외래 동요가 대부분이죠. 가령 「여우야 여우야」, 「꼬마야 꼬마야」 같은 노래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진행자: 아, 그래요? 이 노래들이 외래 동요였군요. 그럼, 우리 전래 동요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 교수: 우리 전래 동요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놀이와 노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또한 동물이나 곤충과 놀면서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있죠. 이처럼 전래 동요에는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요? 그런 전래 동요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왜 그렇죠?

이 교수: 실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 동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활문화가 크게 바뀌었고 우리 전래 동요도 많이 사라졌죠.

진행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 노래들을 우리가 잘 살려 나가야 할 텐데요. 그럼, 이들 전래 동요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교수: 요즘 노래와 달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불러 선율이나 노래는 비록 단순하지만 아이들의 감수성이 잘 드러난 노래들이 많습니다. 또, 악보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노래라도 지역이나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불리죠. 또한 우리말의 리듬이 잘 드러나 있어 누구나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전래 동요를 하나 들려주시죠.

이 교수: 네. 전라북도 지방에서 전래된 노래인데요, 잘 들어 보세요. (음악) 마른 눈에 우렁 / 진 눈에 대수리 / 대수리는 껌더라 / 껌으면 까마구 / 까마구는 날더라 / 날면 비둘기 / 비둘기는 회더라 / 회면 영감

진행자: 선율이 참 특이하네요.

이 교수: 네, 맞습니다. 전래 동요가 대체로 그렇듯,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말이 지닌 리듬감이 잘 드러나 있죠. 특히 이 노래에는 전래 동요의 특징적인 형식

가운데 하나인 말 잇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말꼬리를 이어가며 부르는 노래군요. 참 재미있네요. 그럼, 이와 비슷한 노래를 하나 더 들려주시죠.

이 교수: 그러죠.

5. 비판적 사고(전래 동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전래 동요의 특징에 대해 교수가 대답한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 먼저 전래 동요는 놀이와 노래가 어우러져 있다고 했고, 이어서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이 잘 담겨 있다고 했고, 다음으로 악보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노래라도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 전래 동요를 예로 들며 말하듯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말의 리듬감이 잘 드러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고는 말한 바 없다. [답] ④

6. 추론적 사고(이어질 노래의 추리)

정답해설 : 대담 끝 부분에서 진행자는 말꼬리를 이어가며 부르는 노래를 하나 더 들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답지 중에서 말꼬리를 이어가며 진행되는 노래는 ‘등 굽어 - 길마 - 구멍 - 시루’로 말꼬리를 이어나가는 ①번이다. [답] ①

[7-14] 쓰기, 어휘·어법

7. 추론적 사고(자료를 통해 내용에 맞게 연상하기)

정답해설 : 손전등이 꽃에 가까워짐으로 인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통해 ‘상대방의 의미가 더욱 객관화된다.’는 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림자가 ‘커지는 것’과 상대방의 의미가 ‘객관화되는 것’이 서로 어떤 연상의 인접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커지는 것은 타인의 의미가 주체인 ‘나’에게 더욱 큰 의미가 되는 것 정도의 진술이어야 적절한 연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8. 추론적 사고 (주제에 맞게 계획하기)

정답해설 : 건의문의 주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이다. 따라서 글 내용으로 선정될 항목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용 선정]의 항목 중 첫째 항목으로 제시된 자전거 분실 문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자전거 분실 문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와는 관련이 없으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문제는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인정한다 할지라고 그것은 이미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고 난 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답] ③

9. 비판적 사고 (개요의 작성과 수정)

정답해설 :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작성된 개요에서 III.-1의 내용은 부적절하다. 재래시장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성격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의 주제와 어울릴 수 없다. 따라서 ③에 제시된 것처럼 ㉠이 주제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살린 시설’을 마련한다는 진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③

10. 추론적 사고(자료의 해석을 통한 활용)

정답해설 : 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 1인당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 통계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ㄷ.은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늘어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자료를 결합하면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답] ④

11. 추론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남의 충고에 대해서 소가 뿔로 들이받듯 과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사회에 해로운 존재라는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는 댓글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남의 충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이 긍정적인 면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④의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남의 충고에 과격하게 반응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 두 진술은 동일한 행동으로부터 제기된 상반된 성격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답]⑤

12. 비판적 사고 (고쳐쓰기)

정답해설 : ㉠은 전화기의 고장과 성의 없는 서비스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 전체의 내용을 담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글의 맨 앞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한 수정으로 보기 어렵다. ㉡에는 ‘이런 성의 없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글의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앞에 진술된 내용을 가리키는 ‘이런’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게 삽입된 상태가 된다. [답] ②

13. 어휘·어법(어휘의 특성 이해)

정답 해설 : ‘미연(未然)’은 사용상 원칙적으로 ‘미연에’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때를 의미하는 어휘이다. 따라서 ‘결합되는 조사의 종류’라는 측

면에서 볼 때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극비리’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14. 어휘·어법(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되다¹’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능동인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되다²’는 일부의 명사나 어근, 부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해당하는 명사와 용언의 어근, 부사가 의미하는 상태나 성질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바뀌거나 변화한다는 의미를 더한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⑤

[15-19] 현대소설, 김유정, ‘만무방’

작품해설 : 1935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제목인 ‘만무방’은 ‘염치없이 막되어 먹은 사람’이란 뜻으로 이 소설의 인물로는 ‘응칠’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 소설은 상반된 인물인 응칠과 응오 두 형제를 통해 식민지 농촌의 궁핍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확을 해도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현실을 앞에 두고서 자기 논이 벼를 도둑질하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적 아이러니이다. 즉 자기 것을 자기가 훔쳐야 하는 상황을 통해 1930년대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유정 특유의 문체에도 주목하며 감상해야 한다.

[주제] 식민지 한국 농촌의 궁핍한 실상과 그것으로 인해 왜곡된 삶

15.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에서 응칠이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그리워 응오를 찾아왔다. 응오는 성실한 농민이지만 벼를 베지 않고 있다. 아내가 거의 죽게 된 데다 수확해 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수확했다가 빈 지게로 돌아오며 울었던 작년의 경험이 있는 데다가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기 때문이다. 응칠이는 응오를 도와주려고 지주를 만났다가 지주의 태도에 화가 나서 지주의 뺨을 갈기는 실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응오의 논에 도둑이 드는 변괴가 발생한다. 응칠이는 자신이 전과자여서 의심을 받을 것으로 짐작하고 자기가 범인을 잡아서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응칠이가 잠복까지 해가며 그 범인을 잡고 보니 동생 응오였다. 이처럼 이 작품은 응칠과 응오 두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인물의 움직임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작품은 응칠과 응오의 경험 위주로 전개되므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삽화(이야기 가운데 본 줄거리와 관계없는 끼워 넣은

이야기) 형식도 아니다. ③ 인물의 심리나 상황에 대한 묘사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장황한 해설’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작품에서 작가 의식은 상황적 아이러니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지 ‘장황한 해설’을 통해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인물의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회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수확해도 얻을 것이 없는 서글픈 현실과 관련되므로 서정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16. 추론적 사고(상황의 변화 및 장면의 기능 추리)

정답해설 : [A]는 ‘올해는 흉작이라 수확을 해도 빛도 다 못 갚을 상황이라서 벼를 수확하지 않고 내 던져 둔’ 응오의 처지를 드러낸 장면이고, [B]는 자기 벼를 스스로 훔치다가 응칠에게 들킨 응오가 ‘왜 형까지 못 살게 구느냐’며 울고 나서 ‘내 것 내가 먹는데 무가 뭐랴’며 사라지는 장면이다. 따라서 [A]는 [B]의 사건(응오가 자기 벼를 스스로 훔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되며, 이러한 상황적 아이러니는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자기 벼를 자기가 훔치는 것은 역설적 상황이다)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ㄴ의 경우 [B]에서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ㄹ의 경우 불만의 대상은 [A], [B] 모두 표면적으로는 ‘개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이다.

17. 비판적 사고(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응칠이가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 것은 못 본지 오래된 동생이 그리웠기 때문이다. 와서 보니 응오의 눈에 도둑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고, 응칠이는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기가 도둑을 잡아서 혐의를 벗으려고 도둑을 기다리는 것이다. [답] ②

18. 추론적 사고(구절의 문맥적 의미 추리)

정답해설 : ㉠은 응칠이가 도둑을 잡고 보니 자기 동생인 응오였기에 당황해 하는 대목인데, 응오의 입장에서는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에 울분과 비애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답] ④

19. 어휘·어법의 이해(생소한 고유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④의 ‘모로’는 거절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옆쪽으로, 대각선으로’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쳐주다 : 인정하여 주다 ② 즐이다 : 속을 태우다시피 조바심하다. ③ 가리다 : 빛·외상값 따위를 셈하여 갚다. ⑤ ‘뺑소니를 놓는다’는 것은 문맥상 ‘뺑소니를 친다’는 의미이다.

[20-23] 사회, '제3자 효과 이론'

지문해설 : 제3자 효과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대중 매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전달 내용이 유해한 경우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이론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과 연결되면서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이용되곤 한다.

[주제] 제3자 효과 이론의 효과와 의의

20.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제3자 효과 이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등장 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론의 정확한 개념, 제3자 효과 이론이 갖는 의의, 그리고 제3자 효과 이론이 적용되는 다른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 단락은 제3자 효과가 유해한 내용을 전달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제3자 효과 이론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3자 효과 이론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②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는 제3자 효과 이론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④ 제3자 효과 이론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으로, 이는 이 이론의 의의에 해당한다. ⑤ 제3자 효과 이론을 여론이 여론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데도 이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21. 사실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제3자 효과 이론의 핵심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믿는다는 데 있다. 즉 자신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지만 타인들은 대중 매체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대중 매체가 전하는 해로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리리라는 우려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중 매체에 대한 검열과 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대중 매체에 대해 자신이 받는 영향과 타인이 받는 영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하므로 가장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⑤이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 ③은 자신이 받는 대중 매체의 영향과 타인이 받는 영향이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④는 자신보다 타인이 대중 매체의 영향을 덜 받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22. 추론적 사고(문맥적 의미의 이해)

정답해설 : 본문의 ‘언다’는 어떤 사례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포착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상황에서 쓰인 말로,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제시된 여러 사례들 중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②가 맞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돈을 빌리다’의 의미. ③ ‘병을 앓게 되다’의 의미 ④ ‘권리나 결과, 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의 의미 ⑤ ‘사위, 며느리, 자식, 남편, 아내 등을 맞다.’의 의미.

23. 추론적 사고(뒷받침 진술의 이해)

정답해설 : 제3자 효과 이론은 곧 ㉠이 지니는 행동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은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훨씬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대중 매체에 대한 검열과 규제 정책의 실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내용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 행동 성향을 인지하고 제3자 효과 이론을 터득하게 된 독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사실이지 ㉠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대중 매체의 유해한 내용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③ (다) 단락에 드러나 있듯이 유해한 내용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므로 ④ 검열과 규제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⑤ 대중 매체의 영향은 사람들 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쉽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지간해서는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24-27] 기술, ‘산업 분류 체계의 종류와 의의’

지문해설 : 산업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다양한 산업의 정의와 분류의 기준이 마련된 것임을 전망하는 설명문이다. 글쓴이는 1~5문단을 통해 경제학자 클라크의 1·2·3차 산업 분류와 국가가 제정하는 표준산업분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투자 기준 산업분류, 새로운 기술 영역의 출현에 따른 산업 분류, 시장 수요에 따른 산업 변화에 따른 분류 등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는 앞으로 산업에 대한 정의와 분류의 기준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제]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분류 체계의 종류와 의의

24. 사실적 사고(세부적 정보 파악)

정답해설 : 클라크의 산업 분류는 원료의 채취와 생산, 원료의 가공, 가공 원료의 유통이라는 특성을 반영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산업을 각각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클라크의 산업 분류가 기술 진보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답] ①

25. 추론적 사고(삽입될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보기>는 새로운 학문의 등장과 그 학문의 명칭에 따른 학과 명칭의 설정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로봇 공학을 가르치면 로봇 공학과, 분자생물학을 가르치면 분자생물학과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학문의 명칭과 학과 명칭의 관계는 제시된 지문의 산업 분류 유형 중, 기술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과 유사하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의 내용 그대로가 산업 명칭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답] ④

26. 추론적 사고(판단의 근거 추리)

정답해설 : 글쓴이는 6문단에서 이미 산업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의 생성과 소멸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고정된 기준으로 산업을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앞으로 적절한 방식이 될 수 없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존의 분류 기준으로는 산업의 실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①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①

27. 어휘·어법의 이해(어휘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과 ㉡는 맥락 상 반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태어나다’와 ‘자라다’는 서로 의미 관계가 반의 관계에 있지 않다. [답] ①

[28-32] 현대시

(가) 이육사, ‘교목’

작품해설 : 이 시는 교목이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교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으로든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시련을 이겨내는 의지

(나) 신석정, ‘들길에 서서’

작품해설 : ‘나’의 생활을 되돌아 보고 삶에 대한 밝고 건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작품이다. 현실이 암담하지만 추구하는 세계는 밝고 희망찬 세계이고, 화자는 반드시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의지를 가지며 나아가고자 한다.

[주제] 굳센 삶에의 의지와 이상 세계 추구

(다) 김종길, ‘고고’

작품해설 :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고고함이란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

다려야 겨우 확인할까 말까한 것일 수 있다. 즉 고고함이라는 정신세계는 세속화를 거부하는 것인 동시에 삶의 긴장감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쉽게 변질될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한 것으로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얻을 수 없는 세계의 것이다. 이것은 시인이 추구하는 고고한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고고한 삶의 지향

28.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나)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생활일지라도 굴하지 않고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다)에서는 고고한 삶의 자세와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는 둘 다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현실과 이상이 괴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③ (다)는 일상 생활이 아닌 고고한 삶의 세계를 보여준다. ④ (나)에만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29.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와 같은 직유법과 의인법이 쓰였고, ‘거미집’, ‘꿈길’, ‘바람’ 등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도 역시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푸른 산처럼’과 같은 직유법과 ‘푸른 하늘’, ‘푸른 별’ 등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둘 다 어조가 일관되어 있다. ③ (나)에만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고 있다.

30. 추론적 사고(자료를 통한 작품 해석)

정답해설 : (가)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작품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바람’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인의 실행 의식과 저항 의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답] ⑤

31. 비판적 사고(시상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나)는 삶의 숭고함과 삶의 희열, 삶의 목표 확인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 범위가 점점 좁아지면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의 내용이 B에서 응축되고 B의 내용이 C에서 응축된다고 할 수 없다. 나란히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③

32. 창의적 사고(작품의 창작 과정 파악)

정답해설 : 북한산이 그 고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 겨울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 노래하고 있다. 가볍게 눈을 쓰고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이라도 윈 산을 뒤덮는 적설로는 그 고고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윈 산을 뒤덮는 적설’이 가볍게 눈에 덮여 있는 상태와 호응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얽은 화장’은 눈이 살짝 쌓인 북한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차가운 수목은 겨울산의 모습을 그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③ 겨울과 대비되는 때의 소재를 말하고 있다. ⑤ 산봉우리의 고고함은 긴장을 조금만 늦추어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33-36] 인문, ‘지식의 유형과 형성(인식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철학의 하위 분야인 인식론을 다루고 있다. 글쓴이는 인식론에서 다루는 지식의 유형을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표상적 지식을 다시 경험적 지식과 선형적 지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절차적 지식이고,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표상적 지식이다. 예컨대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이 절차적 지식이고,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것을 표상적 지식이다. 표상적 지식 중에서 감각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이고,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선형적 지식이다. 선형적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주제] 인식론에서 본 지식의 유형

33. 사실적 사고(정보의 개괄적 확인)

정답해설 :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 보면, 지식은 크게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으로 나뉘고, 이 중에서 절차적 지식은 자전거 타기처럼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표상적 지식의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예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끝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첫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34.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찾기)

정답해설 : 가수의 이름을 아는 ①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아는 ②와,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것을 아는 ⑤는 모두 감각 경험에 의존하는 경험적 지식이고,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 아는 ④는 선형적 지식인데, 이 네 가지는 모두 정보의 소유

를 의미하는 표상적 지식에 해당한다. 반면 ③에서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능력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을 절차적 지식으로 분류했다. [정답] ③

35. 추론적 사고(논리적 전제의 추리)

정답해설 : 논리적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까다로운 문제이다. ㉠은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감각적 경험 → 귀납추리 → 일반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은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 = 경험적 지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려면 ㉠의 과정에서 ‘귀납추리가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일 귀납추리가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게 된다면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은 감각적 경험과 무관한 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에 기초해 있다. ② ㉠에 의하면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도록 해 주는 수단일 뿐이므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④ ㉠에서 개별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경험이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만일 귀납추리를 통해 지식이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처럼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이 곧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된다. ⑤는 귀납추리의 속성과 관련된 옳은 진술이지만 ㉠, ㉡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36. 어휘 · 어법의 이해(고유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

정답풀이 : ㉠의 기본형인 ‘드러나다’는 ‘겉으로 나타나다’는 뜻으로 굳이 한자어로 바꾼다면 ‘노출(露出)되다’나 ‘노정(露呈)하다’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을 ‘천명되기도’라고 바꿔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천명(闡明)되다’는 ‘드러내서 밝히다’는 의미를 지닌 ‘천명하다’의 피동형이다. [답] ①

[오답피하기] ㉡ 습득(習得)하다 :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다. ㉢ 의거(依據)하다 : 어떤 사실이나 원리에 근거하다. ㉣ 형성(形成)되다 : 어떠한 모양이 이루어지다. ㉤ 별개(別個)의 : 서로 다른, 서로 관련성이 없는

[37-40] 예술, ‘대중매체와 예술’

지문해설 : 이 글은 대중 매체를 대하는 예술계의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술계에서는 대체로 대중 매체를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내용을 대등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주제] 대중 매체에 대한 예술의 태도

3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근본주의 회화와는 달리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대중 매체를 비판한 사례로 ‘팝 아트’를 소개하고 있다. 즉, 팝 아트는 대중문화의 산물을 수용하면서도 대중 매체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점이 영국의 초기 팝 아트에서 두드러졌다고 했다. 반면에 미국의 팝 아트는 애매한 태도나 낙관주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비판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미국의 팝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샌들의 ‘자유를 위한 힘찬 일격’을 소개하며 대중 매체에 대한 전면적인 비난과 거부로는 대중 매체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근본주의 회화의 미술가들은 대중 매체를 부정하기 위해 회화의 근본을 찾아내려 고심했다고 했다. 그들의 목표는 회화의 근본이라는 것이었기에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리는 행동까지 나아간 것이다. ③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팝 아트는 다양한 태도를 보였는데 비해, 영국의 팝 아트는 대중 매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했다. ⑤ 리히텐슈타인의 미술은 근본주의 회화가 아니라, 미국의 팝 아트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38. 추론적 사고(정보 간의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의 근본주의 회화에서는 회화의 근본을 찾기 위해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과정과 방식이 중요해졌고, 이 자체가 회화의 주제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반면에 회화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중 매체를 비판한 것이 팝 아트인데, ㉡은 이러한 팝 아트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으로 만화의 재현 방식 자체가 주제가 되면서도 내용 역시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둘의 공통점은 그리하는 방식이 주제가 된다는 점이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다고 했다. ② ㉠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은 대중 매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반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또한 만화의 형식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 전쟁을 소재로 삼았을 뿐이다. ③ ㉠에서는 대상의 이미지를 제거해 버렸지만, ㉡은 내용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기에 이미지를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과 ㉡은 형식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내용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기에 작품의 의미가 공허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는 <보기>에서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을 활용하는 것이며, ㉡는 휴 게이츠겔의 사진을 오페라의 유령에 등장하는 유령의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은 이렇게 함으로

써 생겨난 휴 게이트의 이미지가 비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㉔와 같이 정치가 휴 게이트의 정책에 반대하는 해밀턴의 입장을 담아내고 있다. ㉕의 내용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보기>에서 대중문화는 영화인테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 ⑤

40. 비판적 사고(판단의 근거)

정답해설 : 리히텐슈타인의 ‘파광!’은 만화의 형식을 문제 삼고 있다. 즉, 만화의 밝고 경쾌한 양식이 어떻게 공포와 고통의 전쟁이라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은 이러한 내용과 표현 방법 간의 모순을 알아차려야 작가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답] ⑤

[41-45]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적벽가

작품해설: 중국의 군담 소설인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 대전을 모티프로 삼아 만들어진 판소리 작품이다. 제시된 지문은 위나라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와 대치하여 싸우다가 완전히 패배하여 정욱을 비롯한 부하들과 도망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판소리가 가진 율문적 특성과 조조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해학적인 내용이 잘 어우러져서 독자에게 재미를 준다.

[주제] 영웅들의 다양한 면모와 전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

41. 사실적 사고(작품의 세부적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조조 그리고 정욱을 비롯한 부하들은 전투에서 패배하여 도망을 가고 있다. 도망가는 상황 역시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장면 전개를 통해 조조가 커다란 낭패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조는 자신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군사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나라 장군인 주유와 촉나라의 군사 지휘자인 제갈공명을 비웃는다. 그러나 그 비웃음이 끝나자마자 조자룡이 등장하여 조조를 공격하고 조조는 남은 군사들마저 다시 잃게 된다. 따라서 조조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패배시킨 적국의 장수를 비웃음으로써 어리석고 허세를 부리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42. 추론적 사고(장면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나)는 조조와 정욱의 대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조는 도망 중에 겁먹은 행동을 계속 보여주며 동시에 상황과 동떨어진 ‘술안주’ 이야기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지면서 해학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진술은 (다)의 장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는 조자룡의 등장으로 조조가 다시 패퇴하게 되는 장면을 3·3 또는 3·4조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③

43. 추론적 사고(진술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조조의 웃음은 자신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가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승리한 주유와 제갈공명을 비웃는 웃음이다. 그러나 곧 조자룡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패배하게 되면서 그 웃음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태도였음이 다시 입증되게 된다. 따라서 그 웃음은 방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황이 반전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답] ③

44. 추론적 사고(관점에 의한 소재의 기능 해석)

정답해설 : 작품 속에서 까마귀와 관련된 진술은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 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이다. 이 진술 속에서 까마귀는 들판 대로로 길을 가지 못하고 적에게 쫓겨 이리 저리 숨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조조의 처지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까마귀를 효조와 연결하여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답] ④

45. 어휘 · 어법의 이해(속담을 통한 상황 표현)

정답해설 : (마)에서 조조는 조자룡의 공격을 받아 다시 한 번 큰 패배를 하게 된다. 적벽 싸움에서 크게 패하여 도망하는 조조가 다시 공격을 받아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장면이다. 따라서 한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니 또 새로운 위험이나 난관에 부딪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범을 피하니 이리가 앞을 막는다.’가 조조의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하다. [답] ①

[46-50] 과학, ‘과학사의 그늘-화성의 운하’

지문해설 : 이 글은 화성의 ‘운하’를 사례로 들어 과학적 진실이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실재하지도 않는 화성의 ‘운하’에 근거하여 화성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경위를 살펴봄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진실의 규명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자 스키아파렐리가 지닌 사회적 호감도와 그가 그린 지도가 지닌 외형적 호소력이 망원경과 같은 객관적인 기구보다 더 신뢰 받던 사회에서는 과학적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결국 과학적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 뿐 아니라, 새롭게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오류에 새로운 현상을 맞추는 어리석음으로 일관하였다. 권위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주제] 왜곡된 과학에서의 진실

46. 추론적 사고(적절한 제목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과학적 진실은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권위나 기타 사회의 영향을 받아 과학적 오류를 진실로 착각하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과학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경향을 강조한 것으로, 과학적 진실 추구에 객관적 증거와 연구 태도가 필요함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화성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운하’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진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과학적 진실이 곡해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제목은 ‘과학사의 그늘-화성의 운하’가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답] ④

47. 사실적 사고(중심 구절의 이해)

정답해설 : 화성의 운하를 연구하여 화성 지도를 처음 그려낸 사람은 ‘그린’이다. 그 이후에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등장했다. 글쓴이는 연구와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볼 때 그린의 지도가 스키아파렐리의 지도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다. ㉠의 뒤로 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도록 한다. 지리학의 방식대로 채색한 것은 오히려 스키아파렐리의 화성 지도가 사람들에게 더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이므로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관찰한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은 보고난 후에 기억에 의존하여 다듬는 것보다는 더 정확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③ 망원경은 배율이 높을수록 더 정확할 것이다. ④ 자신이 관측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측자의 관측 결과까지 반영하게 되면 그 정보의 정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추리할 수 있다. ⑤ 대기가 청명한 곳은 천체를 관측하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8. 추론적 사고(사례의 유사점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갈릴레이와 관련된 사례로,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도전하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이 갈릴레이의 관찰 결과를 의심하며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본문의 사례와 비교하여 그 유사점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다. ㉡에서 말하고 있는 ‘천상계의 완전성 개념이 논란이 된 점’은 갈릴레이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문의 화성 관찰에서는 화성의 완전성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본문에서 망원경이라는 객관적인 조건보다 학자의 권위에 더 신뢰를 보였던 분위기 등은 <보기>의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③ 그린의 관측 결과가 스키아파렐리의 결과에 비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갈릴레이의 관측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유사하다. ④ 화성을 관측한 것과 달을 관측한 것 등, 둘 다 천체의 지형에 대한 관측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⑤ 스키아파렐리가 지닌

권위가 오류를 지속시켰다는 점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오류를 지속시켰다는 점이 유사하다.

49.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본문에 나타난 그린과 스키아파렐리의 연구와 그 결과가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파악한 후, 거기에 담겨 있는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된 논쟁들이 과학자들과 일반 대중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생겨난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본문의 내용은 한 과학자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과학자들이 수용하지 못한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관측에서 더 높은 배율의 망원경을 사용했다는 것이 반드시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② 과학적으로 관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다. ③ 스키아파렐리가 그 관찰에 있어서는 덜 과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의 방식대로 지도를 그린 이유로 더 큰 호소력을 얻은 것으로 볼 때, 표현 방식에 따라 과학적 주장이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현재에 와서는 오류임이 밝혀지듯이, 현재에는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미래에는 새로운 이론이나 근거에 의해 오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50. 어휘어법(단어의 유사성 이해)

정답해설 : ‘놀랍게도’에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다’, 혹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성능이 더 좋아진 대형 망원경으로 관측해서 운하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과학자들이 기존의 이론에 관찰된 상황을 끼워맞추려고 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놀랍게도’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처구니없게도’라고 할 수 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놀랍고 신기하게도 ② 아주 크고 훌륭하게도 ③ 유달리 재치가 뛰어나게도 ④ 미처 생각할 겨를 없이 급하게도

[51-56] 문학 복합 [고전시가 + 수필]

(가) 계량의 시조

작품해설 : 봄에 이별한 임이 가을이 되어서 자신을 생각하는가를 탄식하면서 꿈에서나마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계절적인 배경을 시적 상황과 연관시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헤어질 때 울며 잡고 헤어져서 자신

은 아직도 입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입은 자신을 생각하는지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

(나) 조위, '만분가'

작품해설 : 이 시는 입과 이별한 여인이 입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를 당한 시인이 배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일편단심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연군의 정

(다) 양주동, '질화로'

작품해설 : 이 글은 질화로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질화로를 통해서 느끼는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늦둥이를 얻은 부부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애정을 질화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질화로를 에워싼 머슴들의 놀이와 노인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필자가 질화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질화로에 대한 추억과 정감

51.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사랑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이, (나)에서는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에서는 질화로와 관련 있는 추억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답] ②

52. 비판적 사고(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봄에 이별하고 가을에 입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고, (나)에서는 가을 달 밝은 밤에 외롭게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두 시는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둘 다 감정이 노출되어 있다. ④ (나)에만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어 있다. ⑤ 단호한 어조가 아니라 어떤지 알 수 없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53. 추론적 사고(어휘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꿈'은 입과 헤어져 외로운 상태에서 입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추억'은 이웃집 늙은 부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질화로, 머슴과 노인들의 질화로, 부모님과 관련된 질화로 등 다양한 대상과 연관되어 있다. [답] ④

54. 추론적 사고(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침변’ 즉 임의 ‘베갯머리’에 시드는 것은 설중에 혼자 피어 있는 매화이고, 이는 시적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변에 시드는’은 임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시적 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지 임이 처한 현재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③ 죽어서 변하지 않는 만장송이 되고 금강산의 학이 된다는 것은 임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겠다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5. 추론적 사고(부분적 감상)

정답해설 : 겨울밤이 어느덧 밝은 녘이 되었다는 것은 질화로를 둘러싼 정겨운 삶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질화로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놀이를 하는 추억어린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지 겨울밤이 무료하거나 길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답] ④

56.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은 질화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질화로가 가지고 있는 정감어린 이미지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 시절의 회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질화로를 통해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각, 분주하게 놀이를 하는 머슴들의 모습을 드러낸 시각적 감각, 아버지의 고서 읽는 소리가 들리는 청각적 감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난을 환기하는 소재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답] ③

[57-60] 언어, ‘소수 언어의 소멸’

지문해설 : 이 글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의 현황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소수 언어가 사라지는 원인을 살펴본 후 우리가 소수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내용의 제시와 예측되는 미래의 상황 및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 소수 언어 보존의 필요성

5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글쓴이는 2문단에서 언어가 소멸하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것이 토착 언어 사용자들의 거주지 파괴이다. 하지만 이는 언

어 소멸의 원인이지, 언어의 소멸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②의 진술 내용은 인과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후반부에서 글쓴이는 언어 사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야 비교적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③ 2문단의 4행에서 ‘문화적 신경가스’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전자 매체의 확산이 언어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진술하였다. ④ 3문단의 전반부에서 모든 언어를 보존할 수 없는 것은 도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⑤ 4문단에서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다양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으므로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58. 추론적 사고(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언어의 소멸이라는 현상에 대해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을 펼치고 있다. 글쓴이는 여러 근거를 동원하며 언어의 소멸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 몇 가지를 2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에 기대고 있지는 않다. 또한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언어의 소멸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③의 진술은 각각의 내용을 마치 연관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기에 잘못이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언어의 소멸에 대한 예측을 구체적 수치를 동원하여 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② 3문단에서 언어의 소멸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④ 글에서 묻는 방식의 진술은 독자로 하여금 그 대답을 생각하게 하기에 독자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3문단과 4문단에서 이러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언어 수의 90%가 소멸할지 모른다고 했으며, 4문단에서 언어의 소멸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5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자료의 해석)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글쓴이는 언어의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언어적 다양성은 인류가 지닌 언어 능력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기>는 언어에 따른 1인칭 복수 표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영어와 달리 자이세 어는 두 가지의 1인칭 복수 표현이 있으며, 체로키 어에는 더욱 다양한 표현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이 글의 논지대로 ‘언어의 다양성이 인간의 언어 능력이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④ 글쓴이는 언어의 다양성을 바람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⑤이 주장은 글쓴이의 관점과 반대되고 있다.

60. 어휘·어법의 이해(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㉔은 특정한 나라나 민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기에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는 모두 ‘소멸될 위기에 처한 언어’
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답] ㉓